스타케미칼, 경영악화로 "해산"

스타플렉스(대표 김세권)는 폴리에스터(Polyester) 원사를 생산하는 계열사 스타케미칼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23일 공시했다.

스타케미칼은 대출액이 52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63.04%에 해당하며, 출자지분은 580만주로 90.63%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스타플렉스는 "최근 화학섬유산업의 장기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주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기로 한 것"이라고 밝혔다.

스타플렉스는 주주총회 결의 후 청산절차 및 자산회수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13/01/23>